[목회자 모임]

참 예배(요4장)

2010. 1. 31. 이현래 목사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요한복음 1장은 총론이니까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다 지나고 난 뒤에 결론으로 한 이야기이니까 결론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2장부터 시작이다. 2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부터 시작한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변화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한다. 이것은 뒤집자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져야 된다는 뜻이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행위가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행위를 바꿀 일이 없다. 그만큼 올라간 사람이니까 오죽 하겠는가? 지금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다.

교황이 되는 과정을 영화로 보여주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밥을 안준다고 한다. 구멍으로 밥을 넣어 주는데 안 주면 굶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만장일치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교황이 된다. 교황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 같다.

니고데모도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가? 당신의 행동이 이렇고 저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뒤집어야 된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닌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이야기다.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3:4)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요3:8) 이런 식이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아닌가? 결국 대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고, 예수께서는 장대에 달린 놋 뱀을 제시하였다. 놋 뱀을 쳐다보고 살라는 이야기인데 놋 뱀을 쳐다보고 산다는 말은 뒤집어진다는 말이다. 죽은 놋 뱀을 봤는데 사

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는가? 죽었다가 산다는 이야기다.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놋 뱀을 보고 사람이 살겠는가?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놋 뱀을 보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나왔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물 벽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통과해 나왔다고 한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땅에 묻힐 것인데, 이제는 다 물에 빠져 죽겠다고 생각하는 판에 물 벽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서 살아났다.
이스라엘은 살아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실재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을 통과해 나온 것이다. 한 쪽 사람들이 죽는데, 어떻게 다른 쪽 사람은 살겠는가? 그것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뜻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죽음을 거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오는 나라다.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의 나라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그 말이 너무 생소한 말이다. 자기는 지금 평생을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해서 추기경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뒤집으면 뭐가 되겠는가?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지금이 훨씬 낫지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 뱀을 제시하시면서 자기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놋 뱀을 자기로 비유했으니까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 된다. 니고데모 선생님, 당신은 나로 다시 나야 된다는 뜻이다. 예수, 아무 것도 아닌 청년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로 인해서 당신은 다시 나야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나라다. 지금도 보면 그렇다.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쉽게 오면 대통령을 안 뽑아도 된다.

1992년도에 있었던 해프닝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곧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아이들 학교를 왜 보내느냐? 집은 왜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광양 할아버지의 막내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이 교회 목사다. 대장로교 통합측 목사다. 인물이 아주 잘 생겼다. 아들이 넷인가 되는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재산도 제일 좋은 부분만 그 아들에게 분배해 놓았다. 자기 집안에서 목사가 났으니까 영광이고, 거기다 인물도 참 잘 생겼다.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가을 즈음에 형이 왔는데, 막내 동생은 일만하고 농사짓고 있었다. 와서는 뭘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느냐, 예수님이 곧 오시는 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하니까 동생이 형님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기 손바닥에 '92 10 28' 이 글자가 환상으로 찍혔다는 것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자기가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퇴학시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 다 퇴학시켰다. 너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 해 가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자기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겠는가? 더군다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했으니 말이 통하겠는가?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 뱀을 보니까 독사가 물린 독이 빠져나가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장대에 달린 놋 뱀이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사의 독이 빠져나가는구나.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독약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던 그 약이다. 그 주사를 우리가 맞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독이 빠져나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래도 그 독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 계속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당신입니까?' 부활한 후에까지도 그렇게 물었다. 독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묻어 들어온 독이 안 빠져나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독이 그냥 있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생생하게 보았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생하게 보았고, 그분의 삶도 보았는데도 여전히 그 독은 그대로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1:6) 아직 독이 하나도 안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눅22:33),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26:33)라고 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다 버릴 지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거기에도 독이 들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데도 독은 아직 그대로 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7:21)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 속에 독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의지, 의지 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자기 의지로 된다. 그런데 자기가 싫은 것은 자기 의지로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의지로 못 막는다. 잘못하면 속는다. 다른 것은 다 잘 된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 무엇이든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안 되는 것이 하나씩 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참 이상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천만 다행이다.

나는 거기서 한계를 느꼈다. 나는 잘못 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나는 선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만큼은 못 하지만 그와 별로 진배없다. 모범 청년이었다. 사람들이 다 그랬다.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데 나의 한계가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된다.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알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내가 피웠으니까 내가 안 피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못 끊는다. 끊으려면 끊지, 마음은 그렇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안 끊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참 이상하다. 다 할 것 같은데 못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알라고 준 것 같다. 너는 너다. 이것을 알라고 준 것 같다. 그런 것 마저 없으면 자기 한계를 모를 것 같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싶다. 내가 피운 것이니까 내가 안 피우면 되지 하고는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오늘만 안 피우면 된다. 오늘만!, 하고 끊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만 피우고 내일부터 안 피우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거꾸로 내일은 피울지라도 오늘은 안 피우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끊었다고 한다. 참 대단한 방법이다. 금연 캠페인 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만 안 피우면 된다. 오늘만! 내일은 피워도 된다니까 하루는 참을 수 있지 않은가? 내일은 피더라도 오늘은 참자. 그렇게 담배를 끊은 형제가 있다.

그리고 50살 들어서인가 살이 쪄서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을 짝 뺐다. 이런 사람은 참 좋기는 좋다. 사람이 살찌면 안 좋다는 것을 알아도 빼기는 참 어렵다고 한다. 먹고 싶은 것을 안 먹는 것은 본능을 참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가 보다. 먹고 살을 뺄 방법은 없다. 어려운 것인데 그냥 싹 빼 버렸다. 저러면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딘가에는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된다. 고생이 되거나 말거나 할 것이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한계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놋 뱀을 보고 나도 저렇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도 참 복인 것 같다. 나는 일찍 포기했다.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일찍 포기한다. 끝까지 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없다. 조금 해 보고 안 되겠으면 포기를 해버린다. 남이 볼 때는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사실 내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놋 뱀을 보고 독이 빠져야 되는데, 놋 뱀을 보고서도 독이 안 빠진 사람들은 뱀독이 안 빠졌으니까 골짜기에서 죽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뱀독이 다 빠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이 없는 큰 뱀을 보고 독이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죽은 놋 뱀, 쇠로 만들어 놓은 놋 뱀을 보고 자기 독이 빠져 나왔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믿어도 그것이 안 된다. 진짜로 믿으면 되는데, 진짜로 믿기가 어렵다.

저 놋 뱀을 보면 낫는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것이 문제이다. 사람이 그렇게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놋 뱀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죽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독이 와서 죽게 되니까 믿지 않을 래야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겠지만 놋 뱀을 보고 다 살아났다.

믿음도 죽게 되면 생기는 것 같다. 죽을 지경이 되면 지푸라기 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질 것 같다. 우리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죽게 되면 그렇게 된

다.

또 어떤 것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렵게 걸리면 오만 곳에 다 찾아간다.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중에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 군수했던 사람도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 투표하고 나서 우리 집에 왔다. 투표하고 나서 나를 불안해서 찾아왔다고 왔다. 그 사람은 당선이 되기는 했는데, 오죽 불안하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겠는가? 그런데 찾아왔다.

믿음, 믿음 하지만 평소에는 잘 안되고 죽게 되어야, 죽을 지경이 되어야 생기는 것 같다. 보통 때 믿는 것과 죽을 지경이 되어서 믿는 것은 다르다. 어떤 미국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한번 믿어봤다는 말을 했다. 왜냐하면 우물 청소를 하다가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그 한마디가 평생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억지로 못하는 것이다. 죽게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놋 뱀 같은 예수를 보고 뒤집어 지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 놋 뱀 같은 예수를 보고 뒤집어진다는 것은 정말 은혜중의 은혜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이다. 죽어버린 사람인데 부활해도 안 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활한 사람 이야기는 안 한다. 거기서 내가 내 본바탕을 깨닫고 발견했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3장은 그렇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여자는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찾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론이 생긴다. 그리심 산에 있는 것이 무슨 성전이냐? 모세가 명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 우리 민족들은 그리심 산만 예배할 곳이라고 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4:2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

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이다.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는 아들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아들로밖에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하는 장소가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밖에는 예배가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안식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요즘에 천주교에 가보면 의식이 그럴듯하게 있고, 개신교도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우리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필요하다. 모여서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때 경배와 찬양이라고 지금도 하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히트를 쳤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버스에 청년들을 실고 서울에 와서 친히 학습을 받고 간 교회가 그때 많았다. 서울 온*리 교회에서 개발해서 굉장히 유행했다. 지금도 TV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시간 내내 찬양을 한다. 저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잡담하고 있는 것보다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니까 일단 스트레스도 풀리고 잡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라도 좋을 것 같다.

어제도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것을 한 시간 내내 한다.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가 따로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찬송가도 거기 맞춰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한다. 손들고 찬송하고 자기 맘대로 하니까 뛰지는 못해도 그렇게 한다. 거기다가 장소가 넓다면 맘대로 춤도 추면 더 많이 올 것 같다. 요즘 젊은이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듣는 것은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사람이 많아 올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놔두고 다른 것만 하면 시끄럽기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다. 내 생명을 갖고 왔느냐?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보면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고 재미도 있다. 생각하기 따라서 경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형식에 따라서 좋아하고 안하고 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못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춤추고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

니고 좋은데 청년들에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사람을 지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 형상이어야 된다. 그 형상이 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그 형상 외에 다른 것이 오면 만족할 수 없다.

형상이라는 말도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형상은 비슷해지는 것과 아주 다른 말이다.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 하나님 비슷하게 되려고 애를 쓴다. 형상은 형상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전등이면 전기가 들어오면 전등이 되는 것이다. 파란 색이 들어오면 파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들어오면 검은 것이 되는 것이 형상이지 비슷하게 되는 것이 형상이 아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신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비슷하게 되겠는가?

흙 콩을 심어 콩이 난 것이지 흙이 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흙은 절대로 콩이 안 된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많은 콩을 생산해도 흙은 흙이지 콩 되는 법은 없다.

여자가 아기를 많이 낳아도 남자는 안 된다. 여전히 여자다. 똑같다.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완전히 다른데 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것이다. 칼케돈 원칙이 갈라져 있지만 둘이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이다. 칼케돈 회의에서 원칙으로 한 삼위일체론의 원칙이 그것이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이 되는가? 형상은 형상으로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다는 말은 형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지 나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이라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 짐이 없다. 형상이 바뀌져서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대로 있다면 우리는 아무 짐이 없다. 그분이 빨가면 나도 빨개지고, 그분이 하야면 나도 하얘지는 것인데, 내가 무슨 짐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무거운 짐이 생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왜 말하는가? 그 형상을 이야기하느라 그렇다. 형상일 뿐이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니까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하려는 것이 어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 비슷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없어져 버린다. 내려와 보라고 해도 못 내려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 왜 못 내려오는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려 왔어야 한다. 하나님 비슷하게 되었다면 내려오는 흉내라도 냈어야 한다. 비슷하게 된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형상이었다. 완전한 형상이니까 같이 보였던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할 때 비슷해서 한 말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완전한 형상이었구나.

그래서 등인지 빛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다. 등만 있을 때는 분명히 유리였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유리라는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등불이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불알이라고 한다. 불의 알, 원색적인 말인데 불알이다.

예수님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분명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내려올 줄 알았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못 내려온다.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왜 저것을 못 내려오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따라다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못 믿는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못 내려왔다. 그런데 그 못 내려온 사람을 보고 저것이 나구나. 저것이 인생이구나. 저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저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구나.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왜 사람이냐? 이것이다. 둔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어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는데 부스러기만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서 믿겠는가? 하지만 본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그것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믿을 것이니까 하

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오늘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느냐는 말이다.

거기서 볼 때, 그분은 완전한 형상이었구나. 유리인지 불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형상이었구나.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흙에서 콩이 나온다고 누가 믿겠는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흙에서 콩은 안 나온다. 흙으로 콩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다 모르지만 절대로 흙으로 콩을 만들지는 못한다. 중국에서는 종이로 계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흙으로 콩은 못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 한계가 분명해야 될 것 같다. 형상이라는 것의 한계가 분명해야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이다. 하나님 비슷하게 되어서 어떻게 겸손해지겠는가? 하나님 비슷하게 되면 겸손해 지겠는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힘 좋은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는 체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주먹이 나올지 모른다. 있는 힘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는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본 말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그 말은 아들이라야 된다는 말이다. 아들이라야 아들이 와야 예배가 된다. 아들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있겠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찾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 같던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다. 명백하지 않은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겠는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미루는데,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미루려면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하시면 되었지 왜 사역을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안 되니까 사역이 필요하다.

계시라는 것은 맨 처음에 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산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모세 한 사람 뿐이다. 거기서 본 것은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나팔소리, 이런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돌 판에 열 가지 말씀을 새겨 왔다. 아무도 못 오게 했다. 오면 죽는다고 했다. 그 말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자기도 그렇게 가지고 오기는 왔어도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했다.

하나님을 불꽃 중에서 불속에서 만났으니까 만나면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설명까지는 못한다. 누군가 그것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해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냥 산에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내밀어서 사람이 살겠는가? 보면 죽는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다.

생명의 과정은 다 이렇다.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바로 내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소화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된다. 그러는 동안 계속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소가 생 짚을 씹어 먹고 있다. 바짝 마른 것을 무슨 맛으로 먹고 있겠는가? 소니까 먹고 있다. 위가 네 개나 된다. 네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되새김해서 그것을 넘어가고, 되새김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그것이 소에게 양식이 된다. 처음부터 양식이 되지 않는다.

소금 만드는 염전에 가보면 처음에 바닷물을 가둬 놓으면 햇빛에 물은 증발되면 염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판으로 옮기고 또 옮긴다. 이렇게 몇 번 옮기면서 염도가 높아진다. 마지막 판에 오면 위에 살얼음이 끼듯이 소금이 낀다. 그렇게 두면 조각조각 얼음조각처럼 밑으로 내려가는데 긁어내면 그것이 소금이다. 천일염이라는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통과해서 마지막에 소금이 된다. 바닷물이 그냥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생명이 공장에서 만들면 몰라도 한꺼번에 되겠는가?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만 봐도 처음에 올라오는 것은 물 같은 것만 올라온다. 올라가면서 과정을 거쳐서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 위에 가서 이파리를 씹어보면 밑의 고로새 물 같은 그 물과 냄새가 비슷하다. 더 짙어지고 점점 올라갈수록 짙어지고 마지막에 열매가 된다.

계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처음 본 사람은 이백만 가운데 한 사람 뿐이다.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 뿐이다. 그것은 계속 해석되어져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생콩을 삼켜서 도로 나오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고 말씀한 이유가 그 법이 다 있어도 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돌

판에 있으면 뭐하겠는가? 법궤 안에 있으면 뭐하겠는가? 내 것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한 과정을 더 올려서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고후3:3)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5)라고 말했다. 그 말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석되어 내려왔다는 뜻이다. 모세는 돌 판을 갖다 놓았지만 바울에 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고전12:27)라고 나온다.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안되면 더 해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말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또 해석 되어야 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 계속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을 가둬놓고 일점일획이라고 건들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오래가도 생콩이다. 씹어보고 소화해보고 이래야 되지, 씹어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할 필요도 없다.

아들이라야 된다.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아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볼 때 자기의 형상들이 모두 와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렇지만 건초들만 잔뜩 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신경질이 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니까 참지 나 같으면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할 것이다.

설날에 부모들은 자식들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다운 아들이 오지 않고 어디서 더럽게 소문난 아들이 줄줄이 오고, 이것저것 사갖고 오면 기쁘겠는가? 빈손으로 오더라도 사랑스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귀신 눈 속인다고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한다. 상 차려 놓은 곳에 가보면 못 먹을 것을 차려 놓는다.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모양을 위해 차려 놓는다. 꽃 과자 같은 것들인데 귀신 속이는 것이다. 우리 지방 바닷가에 가면 정월 보름에 바닷가에 뭐를 갖다 놓는다. 제사 밥을 갖다 놓는다. 짚을 깔고 그 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가파래라고 먹지 못하는 넓고 파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갖다 얹어 놓는다. 이상하다. 그것을 보고 귀신 눈 속인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에 가면 그렇게 한다. 눈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귀신도 속 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

게서 어떤 간증이 나오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지금 대전에 있는 이*화 형제 손녀 딸이 이번에 주일학교 캠프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교회를 가면 강단에 올라와서 얼굴에 뽀뽀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는 여태까지 교회를 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옆에 사람과 장난만 하다가 왔다. 들리지도 않고 안 들리니까 옆에 사람과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시간만 때우다 왔는데, 이번에 겨울 캠프를 갔는데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더라는 것이다. 스마트 폰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겠는가? 성령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이 한 이야기까지 한다. 아마 창세기를 말한 것 같은데, 시작이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계속 내면서 한다. 그렇지 시작이 있지.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 놓고 우리 순모임 하자고 하여 거기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저히 억지로 못하고 일부러 할 일이 못 되고 앵무새처럼 할 일이 못 된다.

우리 교회에 온 어떤 분은 다 앵무새들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 교회 간증은 앵무새처럼 못한다. 앵무새처럼 하면 당장에 알아버린다. 처음 오시는 분이 모르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것이 앵무새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된 소리를 하든지, 안 된 소리를 하든지, 그냥 나와서 말을 못한다. 말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내용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아무리 안 좋은 경우라도 그냥 나와서 말을 못한다. 자기는 뭔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말이 되지 않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속에는 좋은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이 잘 안 된다. 훈련이 잘 안되어서 대중 앞에 서면 말이 잘 안 된다. 다른 소리가 나온다. 나는 말 안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20분씩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자기는 뭔가 복 받쳐서 나왔는데, 말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저 소리를 왜 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을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노릇하겠는가? 그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한다.

나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겠는가? 안심하고 나와서 해도 되는데 또 제제하니까 그런 것이 없이 나와야 되는데 쭈뼛쭈뼛하고 못나온다. 우리 교회에도 말이 많다. 너무 길게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언부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길게 말하든 짧게 말하든 그 사람 분량만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나는 열 마디 무용보다 한마디 간증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간증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얼마나 속이 기쁜지 모르겠다. 어린애가 하는 말이니까 무슨 큰 말이 있겠는가마는 한 마디라도 시작이 있다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시작이 있다는 것만 알아들어도 다 알아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작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다는 이것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시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머리 좋은 것 같은 사람 많고, 잘난 체하는 사람 많은데, 시작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시작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시작을 모르는데 무엇을 아는가? 아무 것도 모른다. 시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 시작을 아는 것이 시작이었다. 시작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된다. 시작이 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달아서 좋아서 누구에게든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도 옆에 있으면 끌어안고 춤을 추고 싶다. 재미가 있다.

어린 아이 때 그렇게 한 것이 평생 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지식은 없어지지만 한번 그 경험을 하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만일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한번만 그렇게 빛을 봐도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돌아온다. 그 아이가 빛이라는 말도 했다. 빛이 오면 뭐가 보인다고 하더니 시작이 보인다고 했다. 그것을 보면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런데 무슨 의식을 한다고 기뻐지겠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뻐하겠는가? 그리심 산에 본다고 해서 기뻐하겠는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영이라는 말도 다르게 해석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고분자라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더 이상 가를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인 진실이냐는 것도 정말 쉽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따르느냐? 진실해서 따른다. 그분이 진실해서 따른다.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는 진실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같았다.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갔을 때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실한 것이다.

이번에 사랑방에 참 자유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참 자유라고 썼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자유, 자유 하길래 한 말을 썼다. 참 자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반응이 여러 가지이다. 진짜 내가 자유하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자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저럴 수는 없다면 자유가 아니다. 어디 매여도 매인 것이다. 왜? 내가 비어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수는 있는데 저럴 수는 없는 사람들이 문제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똑같다. 이럴 수 있었으면 저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념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때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사람을 살리지 꼭 이럴 수밖에 없다면 사람을 못 살릴 때가 많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여 온 여자를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저럴 수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8:5)라고 하는 말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럴 수도 있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고 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는가?

참 예배는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진실은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이 진실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정성을 다하고 어쩌고 그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에서 온 개념인 것 같다. 신령과 진정, 지성이면 감천, 이런 개념으로 번역해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바꿨다고 한다.

진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은 다 심판이 된다. 진실하지 않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자기는 진실하다고 한다. 입장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 여당 때 다르고, 야당 때 다르고, 다 달라진다. 여당의 진실이 다르고, 야당의 진실이 다르다. 그것이 인생이다.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하고도 진실 공방을 한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의 실제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표준이 딱 생겼다. 모든 것의 표준이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예수가 표준이 되니까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안에 그 진실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실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이고 약속이고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다. 그 사람을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다는 것이다. 그 약속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 안에 오지 않으면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서 다 심판된다.

감사합니다.